

화순군, '기초생활보장제 완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183만3000원→195만1000원으로 자동차 재산 기준 탈락 최소화 "저소득층 생활 지원 강화할 것"

화순군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대상자와 지원금을 확대한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만9000원에서 2025년 609만7000원으로 상승한

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기준액이 올해 183만3000원에서 2025년 195만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7000원 증가한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기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의 근로 소득 공제 대상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을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200만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한다.

허신심 사회복지과장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도 개선을 다각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노사 상생 장애인복지시설 후원 사회복지법인 귀일원

사회복지법인 귀일원은 지난 24일 귀일원 내에서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 지회(MOVIENT)와 함께 노사 상생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 후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 지회 회원들이 연중 급여의 일부분을 적립해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에 후원하는 행사이다.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는 사회복지법인 귀일원과 후원 나눔 행사를 통해 노사 상생을 통한 새로운 후원 문화 제시와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내 관심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사회복지법인 귀일원 관계자는 "이번 후원 행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지역사회 내 기업 후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후원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곡성=김대명 기자

'문화·체육 프로그램' 수강생 선발 10개 강좌, 선착순 138명 모집 화순군청소년수련관

화순군은 25일 화순군청소년수련관에서 2025년 1분기 문화·체육 프로그램 참가자 138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1분기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와 운영위원회 의견을 반영, 문화·체육·예술·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10개 강좌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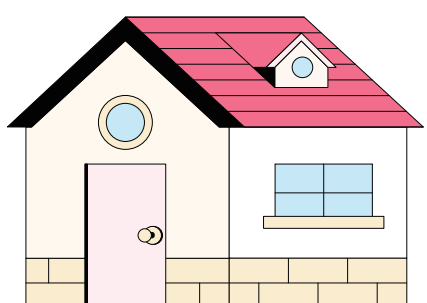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강좌로 △이븐한 '스포츠' △다트 플레이어 △우아핑 '발레 클래스' △킹무브 '체스 게임' △여기 '클라이밍' 어때 △나는 토요일 '어쿠스틱 기타' △'웹툰' 팩토리 △수련관 '분식집' △너는 일요일 '어쿠스틱 기타' △'바이올린' 선율 등을 내년 1월16일부터 3월30일까지 매주 해당 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이며 신청 방법은 내년 1월4일부터 9일까지 화순군청소년수련관(<https://hwasunyouth.kr/>) 누리집 프로그램 신청 게시판에서 하면 된다.

접수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결정 확정된 신청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소년수련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문화·체육 프로그램 담당자(061-379-5167)에게 문의할 수 있다.

화순=김선중 기자



청년하우스 입주자 추가 모집 화순군, 30일까지 남성 4명

화순군은 저렴한 임대료로 구직자들에게 주거형 취업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하우스 입주자를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순군 청년하우스는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구직 중인 무직자, 무주택 청년이며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포함된다.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전국 단위),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입주신청서 등이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 청년하우스는 총 4실이 제공되며 모집인원은 남성 4명이다. 3명은 관내 청년 대상, 나머지 1명은 관외 청년으로 모집한다. 여성은 모집인원을 초과해 별도로 선발하지 않는다. 호실은 1인실과 2인실로 나뉘지며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청년하우스 거주 청년들의 입주 기간은 1년이며 보증금 50만원, 임대료는 월 1만원이다. 청년하우스 입주자는 △청년센터와 연계된 취·창업 단계 특강(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면접 사진 촬영비 지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 화순군 청년들과 동일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추가모집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2025년 1월8일 추첨대상자 발표 후 15일 입주대상자 추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함평군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지난 20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디저트 만들기 체험

함평군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하고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기 위한 '메리 나산 사랑의 디저트 만들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25일 함평군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아이들에게 성취감과 창의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60명이 참여해 쿠키클래스를 체험하고 자신만의 케이크를 만들었다. 행사 중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며 눈높이를 맞춘 소통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천수 민간위원장은 "우리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은 탓에 아이들이 꿈을 펼칠

기회가 부족했지만, 이번 행사로 마련된 공간을 통해 아이들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정제원 나산면장은 "아이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 겨울밤 빛축제' 일주일 더 본다

겨울밤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함평 겨울밤 빛축제'가 방문객들의 호평에 힘입어 일주일 더 손님맞이에 나선다.

함평군은 25일 '함평 겨울밤 빛축제' 운영 기간을 7일 연장해 내년 1월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매일 오후 4시부터 중앙광장 대형 전광판으로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금·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먹거리존, 농특산물 판매존이 그대로 운영되고 크리스마스 체험프로그램과 공연, 군립미술관은 운영되지 않는다.

추억공작소, 나비군중표본전시관, 다육식물관, 자연생태관, 수생식물관, 친환경농업관도 오후 9시까지 매일 운영된다.

올해 '함평 겨울밤 빛축제'는 지난 11월26일부터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축제장을 방문한 많은 관



함평군이 겨울밤 빛축제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내년 1월1일까지 운영한다. 연장 기간에도 중앙광장 대형 전광판으로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함평군 제공

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겨울밤 황홀한 빛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입소문이 나면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연인 등 젊은 층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은 "올해 처음 선보인 함평 겨울밤빛축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축제가 1주일 연장된 만큼 남은 축제 기간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